

[ 사회 ]

■ 오늘 '부부의 날'...신세대 부부가 사는 법

부부싸움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트렌드

주부 이모(여·33·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씨는 얼마 전 싸이월드에서 로그인했다가 미니홈피 스킨(유료 배경화면)이 결혼 사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결혼 4주년을 맞아 싸이월드 미니홈피 관리)를 시작한 김씨에게 남편이 스킨을 직접 만들어 '깜짝 선물'로 보낸 것이다. 인터넷에 관심이 없었던 이씨는 친구들이 홈페이지 가족들 사진을 올리고 틈틈이 남편과 쪽지를 주고 받는 모습을 보면서 뒤늦게 흥미를 만들었다. 집안 일로 스트레스가 쌓이던 이씨가 이력서 작성도 하고, 평소 표현 못 했던 '진한' 애정 표현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됐다.



싸이월드에 개설된 한 '디지털 부부'의 미니홈피.

인터넷으로 사랑을 속삭이고 싸우고 화해하며, 육아 문제를 상의하는 '디지털 부부'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홈피·블로그에서 함께 육아일기를 쓰기도 하고 연애에서 결혼까지의 과정과 사진을 차곡차곡 올려 두는 등 과거의 빛 바랜 앨범을 온라인 속으로 끌어들이 추억을 공유하기도 한다.

맞벌이를 하는 김모(40·광주시 동구 유림동)씨 부부는 최근 이메일로 싸움을 했다. 발단은 중학교 1학년인 딸의 영어학원을 어머니가 찾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그러나 집안의 물건을 던지고 큰 소리를 지르던 과거와는 달리, 메일로 다룬 탓에 감정이 격해지지 않고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한다.

국제결혼을 한 송모(여·28·일본 오사카)씨는 메신저가 중매역할을 했다. "매일 신선처럼 살아요" 송씨는 "남편과 늘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대화를 저장해 둘 수 있어 연애 시절에 주고받았던 대화를 함께 보면서 기분을 내기도 한다"고 웃었다. 가정문제 전문가들은 "'디지털 대화'는 직장이나 가정 문제 등으로 부부 싸움을 할 때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많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자판을 두들기면서 화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이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게 되며, 미안한 마음도 갖게 되는 등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특히 했다. 송씨는 대학 3학년 때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다가 현재의 신랑을 만났다. 연수 후 오사와 광주에 떨어져 지내던 두 사람은 메신저로 밤새 대화를 주고받고, 화상 채팅도 하면서 사랑을 키우다가 지난 2005년 5월 결혼에 골인하게 됐다. 한국어가 장사로 일하는 송씨는 남편과 휴식시간 중간 중간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다. 가끔은 부부싸움도 하긴 하지만, 남편이 보내는 이모티콘(emoji) '^^~♡'(웃음음자며 사랑을 표현)을 보면 금세 기분이 풀어진다고 한다. 송씨는 "남편과 늘 연애편지를 주고받는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대화를 저장해 둘 수 있어 연애 시절에 주고받았던 대화를 함께 보면서 기분을 내기도 한다"고 웃었다.

메신저로 사랑의 밀어... "매일 신선처럼 살아요"

가정문제 전문가들은 "'디지털 대화'는 직장이나 가정 문제 등으로 부부 싸움을 할 때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많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자판을 두들기면서 화를 누그러뜨리고, 자신이 잘못된 점을 되돌아보게 되며, 미안한 마음도 갖게 되는 등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름다운 나눔장터' 북적

1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에서 열린 '동구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나눔장터'. 이날 장터에서는 동구청 직원과 주민들이 기증한 옷·신발·책·주방용품 등 5천500여 점이 팔렸으며, 수익금 250여만원은 미안마의 민주운동 단체에 전달된다. /위정리기자 jrwi@kwangju.co.kr

체험학습 광주 초등생 '술 파티'

학부모들 강력 항의... 학교측 사실조사 나서

서울·경기도 등으로 체험학습을 떠난 광주지역 한 초등학교 6학년들이 밤늦게 숙소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광주 초등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A(13)양 등 남·녀 학생 8명이 지난 16일 밤 10시30분경 경기도 양평 D군도 한 객실에 모여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16~17일 6학년 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험학습에 참여, 서울 경복궁·전경기념관 등을 돌아본 뒤 밤 10시까지 계속된 레크리에이션 등을 끝내고 숙소에서 머물던 중이었다. 학교측은 객실 한 곳에 학생 6~8명을 묵도록 했으며, 인솔교사는 교감을 포함해 11명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술 마시는 것을 목격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연락하면서 알려지게 됐으며,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사실 조사에 나섰다. 당시 학생들이 마신 술은 500ml 용량의 사이다 페트병 2개에 담긴 소주와 캔맥주 3~4개로, 각자 집에서 몰래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이 호기심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다"면서 "반성문을 쓰게 하고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 가정지도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연령이 12.6세로 해마다 저연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보리 익는 '소만(小滿)' 5월 21일 (음 4월 5일) <전국날씨>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and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patter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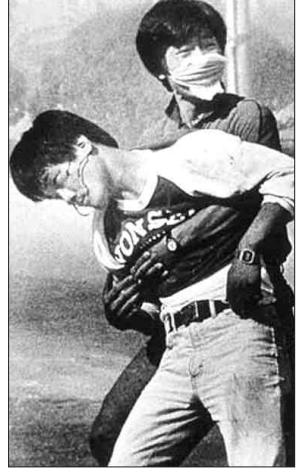
광주·전남 6개교 교장공모제 시범 실시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올해 2학기(9월)부터 실시되는 교장 공모제를 시범적용할 학교 2곳과 4곳을 각각 선정해 21일부터 교장 지명자를 공개 모집한다. 교장 임용기간은 9월부터 2011년 8월 말까지 4년이다. 공모 실시 학교는 광주의 경우 극락초교와 충장중이다. 전남은 ▲구례 문척초교 ▲신안 자은중 ▲완도 청산중 ▲고흥 봉래중이다. 유형별로는 극락초·문척초·자은중·청산중 등 4곳은 내부형, 충장중은 초빙교장형, 봉래중은 개방형이다. 내부형은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초빙교장형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 개방형은 교원이 아니어도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일반인도 응모 가능하다. 지원자는 광주의 경우 21~28일, 전남은 21~30일까지 해당 학교 행정실에 지원서·추천서·경력 및 주요활동 실적·학교경영 계획서 등을 접수하면 된다. 한편 교장공모제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광주·전남 6곳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62곳에 달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황태종기자 hwangtae@

이한열 열사 흉상 7월 진흥고에 세운다

지난 1987년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집권 음모를 저지한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 이한열(당시 20·연세대 경영학과 2년) 열사의 흉상이 모교인 광주 진흥고에 들어선다. 광주 진흥고 총동창회(회장 양해인)는 "오는 7월5일 이한열 열사 추모 20주년을 기념해 모교에서 이 열사의 흉상 제막식을 갖는다"고 20일 밝혔다. 흉상은 1천500만원을 들여 실물의 약 1.5배 크기의 동상(銅像)으로 세워질 예정이며, 조각가 정해만씨가

제작을 맡고 있다. 총동창회는 이 열사의 흉상을 만들기 위해 이 열사의 동문인 진흥고 11회 졸업생을 중심으로 모금운동을 펼쳐왔으며 흉상 제막에 앞서 26일 모교 체육관에서 '흉상건립 한마당 큰잔치'를 열기로 했다. 화순 태생인 이 열사는 1987년 6월9일 '6·10 대회' 참여를 위한 연세대 총결의대회에 참석해 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쓰러진 뒤 7월5일 숨졌다. /황태종기자 hwangtae@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은 후 동료의 부축을 받고 있는 이한열 열사.

2007년 10월 28일 시험 확정!!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격 가능. 공인중개사 18회 시험 합격 해법! Includes details about exam preparation, materia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tutoring center.

글로벌시대 요즘 뜨고 있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는 필수!! 중국어+일본어+영어 = 125,000원 => 99,000원 (교재는 별도). Includes details about language learning programs, material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language center.